

이상학

진(眞) 대한교육보험노동조합 위원장

경제학자들은 부가노동자효과(added worker effect)라는 말을 사용한다.

한 가정에서 주요한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을 대신하여 다른 가족종사자들이 경제활동에 나서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가정의 주수입원이던 가장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경제활동을 계속하여도 가구주의 수입만으로 가족 구성원의 경제생활이 어려워 가구주 이외의 가족 구성원들이 직업 전선으로 나가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경제 활동에 종사하던 가장을 대신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가계의 소득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효과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침체 등으로 일자리

가 부족해지면서 실망노동자가 늘어나는 시기에 나타나기 쉽다. 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던 가구주의 취업이 곤란해 지면서 가구주의 수입으로는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지 못하게 되어 주부와 자녀들이 경제활동에 나서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

통계청이 발표한 97년도 3/4분기 고용동향에 따르면 최근 들어 여성의 경제 참여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취업자 2천1백33만6천명은 작년

보다 24만3천명 늘어난 것이지만 그 증가율 1.2%는 1년 전의 1.8%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그런데 늘어난 취업자 중 여자가 15만4천명으로 63%를 차지해 여성의 경제 참여도가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 인구가 파악하면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6.1%로 작년보다 0.5%포인트 감소한 반면에 여자는 50.5%로 0.4%포인트 증가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도리어 하락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증가한 취업자 중 21만명이 55세 이상이어서 그동안 경제활동에 뜻이 없었던 고령계층이 대거 취업진선에 뛰어들고 있어 55세 이상의 전체 취업자가 3백61만6천명으로 작년보다 6.2% 증가했다.

여성과 고령자의 취업 증가 현상은 2/4 분기에도 나타나고 있었으나 3/4분기에 와서는 더욱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2/4 분기에는 여자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4.3% 증가하였으며 남자는 1.2%의 증가에 그쳤다.

부가노동자 효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기울여야 할 지점은 주요한 경제활동층이던 성인남성의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경제활동 계층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가 감소하고 여성과 고

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추이

(단위 : 명, %)

연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전체	여성	전체	여성
85	15592	5975	4.0	5.6
86	16116	6296	3.4	5.4
87	16873	6735	4.7	7.0
88	17305	6891	2.6	2.3
89	18023	7286	4.1	5.7
90	18539	7509	2.9	3.1
91	19048	7684	2.7	2.3
92	19426	7799	2.0	1.5
93	19803	7913	1.9	1.5
94	20326	8159	2.6	3.1
95	20797	8363	2.3	2.5
96	21188	8668	1.9	2.5

*자료 : 통계청, 종합통계정보(SDATA), 성별 및 농가 비농가 별 경제활동인구, 1997. 7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여성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사회활동을 선호하는 여성계층의 증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핵가족화 현상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가정에서의 남녀평등 의식 확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르

게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필요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가정 경제의 어려움에서 찾아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도리어 감소하고 있음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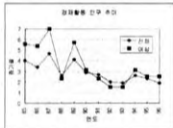
그리고 부가노동자효과를 반증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같은 기간 동안에 여성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97년 3/4분기 고용동향)에 의하면 전체 실업자 47만명중 남자가 30만명, 여자는 17만명으로 1년전에 비해 남자는 2만1천명(7.5%) 증가에 그쳤으나 여자가 5만8천명이나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실업률이 작년의 1.3%에서 올해는 1.9%로 늘어나 남성의 2.3%에 근접하고 있다.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도 부가노동자효과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기 퇴직자의 급증, 전통적인 부모 공양 의식의 붕괴 등이 고령자의 사회활동 참가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최근의 고령자 경제활동 급증은 부가노동자효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여성 실업자의 증가

이와 같은 여성의 실업률 상승은 일하려는 여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여성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여성 취업 희망자 중에 부가노동자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통계가 가지고 있는 엄격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절박한 경제적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프에서 우리는 여성의 경제활동인구의 변화추이를 살펴볼 수가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았던 연도는 80년대 후반을 들 수 있다. 80년대 후반은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였고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도 많았음을 우리는 그래프에서 알 수 있다. 80년대 후반은 전반적인 사회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크게 신장되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다. 특히 87년 이후에는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여성의 취업기회가 늘어나고 있었던 추세도 어느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녀 전체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96년부터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율은 하락하고 있음에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지고 있다.

주변부노동시장 확대에 대한 우려

최근 우리 경제는 WTO 체제의 출범, 그리고 OECD에 가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관치금융과 정책지원, 그리고 국내 시장에 대한 보호 정책이라는 온실 속에서 자라온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에 직면하면서 커다란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다. 최근 국가부도로 불리우는 국가경제의 위기는 온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곧바로 대량의 정리해고를 초래할 것이고 남성노동자들의 실업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던 남성 노동자의 실직은 가정 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사회보장이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실직은 곧바로 한 가정의 경제적 파탄을 말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위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것도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에 가장의 취업은 점차 어려워 지게 될 것이다.

IMF 는 부실금융기관의 폐쇄, 긴축재정, 제로성장 정책, 통화긴축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IMF의 요구는 거의 현실화될 것이고 이는 전례없는 대불황과 대량의 실업 사태를 예견하게 한다. 남성 노동자의 실직은 여성과 청소년, 노년의 노동자들을 시장으로 내몰 것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대부분 주변노동력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면서도 파탄에 이른 가정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 거리로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